



노르웨이 해양수산담당 장관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노르웨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합의
- 조선·해양, 청정에너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3(월) 세종에서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마리안네 시베트센 내스(Marianne Sivertsen Næss) 해양수산담당 장관과 면담을 갖고, 조선·해양, 청정에너지,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한-노르웨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 선박보유 4위이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자재 기술력을 갖춘 조선·해양 강국으로 최근 상당수의 선박을 한국에 발주('22년 14척, '23년 5척)하는 등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이 활발하다.

정 본부장은 조선·해양 시장이 친환경 및 스마트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친환경 조선기자재,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양국 간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두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노르웨이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오는 9월 부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4 기후 산업국제박람회'에 노르웨이 측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한-EFTA FTA가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양 당사국들간 교역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발효 이후 안정적으로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EFTA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한국과의 교역·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측은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교역·투자 외 그린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인 한-노르웨이 무역 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현	(044-203-5660)
	구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권순심	(044-203-5661)